

# 발산마을-임동 잇는 '뽕뽕다리'...공사 지연 왜?

당초 준공시점보다 8개월 미뤄져  
관급자재 수급난·우기철 등 영향  
지난해 폭설에 사고 위험 우려도

5,000만원(특교세 7억원·특교금 5억원·시비 8  
억원·구비 6억 5,000만원)의 예산을 투입했고,  
당초 준공 시점은 지난해 8월이었다.

그러나 지난 2021년 6월 30일부터 12월 20일  
까지 약 6개월 간 관급자재(철근) 수급 지연과  
우기철 시공 안전사고 우려로 공사가 중지됐고,  
지난해 5월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약 3개월간  
관급자재(열연강판) 수급 지연과 홍수기 시공  
불가로 공사가 중단됐다.

뽕뽕다리 개설 공사는 공장에서 제작한 구조  
물을 현장에서 운반해 조립하는 방식으로, 지난  
해 8월부터 11월까지 거더, 기둥 등 교량 상부  
구조물을 뽕뽕다리 개설 공사 현장으로 운반해  
왔다. 지난해 12월에는 거더 지조립 및 용접, 가  
설벤트 설치 등이 이뤄졌고, 케이블 실측 및 제  
작·조립 등을 거쳐 오는 3월까지 뽕뽕다리 개설  
공사가 마무리될 계획이다.

앞서 지난해 5월에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등  
을 통해 교량 하부 시설(기둥)인 2개 교각의 설  
치를 마무리했다.

하지만 일각에서는 서구가 사전에 제대로 된



광주 서구 양동 일원에서 발산마을과 북구 임동을 잇는 '뽕뽕다리' 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.

행정 절차를 준비하지 않은 채 뽕뽕다리 개설사  
업을 추진한 점이 공사 지연으로 이어졌다고 지  
적하고 있다.

뽕뽕다리 개설 공사 진행 중인 곳은 발산마을  
과 임동 사이의 광주천으로, 공사를 진행하기 위  
해선 현재 환경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  
아야 한다.

당시 서구는 허가 관련 업무가 환경청으로 이

전되기 전, 2021년 4월 익산관리청으로부터 하  
천점용허가를 받았고 허가 조건은 우기철 공사  
를 중단하는 게 골자다.

또한 8개월 후인 2021년 12월 장비 이송과 적  
재에 필요한 가축도(흙을 넣어 임시로 설치한  
임시 작업장) 설치 승인 등을 익산관리청으로부  
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.

여기에는 철근, 열연강판 등 관급자재 수급 차

질과 우기철 시공 중단까지 겹치면서 당초 준공  
시점보다 8개월여 지연된 것이다.

다만, 서구는 동절기 기간 콘크리트 타설 작업  
없이 다리 구조물에 대한 조립 및 용접 작업이  
진행돼 붕괴 등 안전상 문제가 비교적 적을 것이  
라고 설명했다.

그러나 용접이나 절단 등 불꽃 작업으로 인한  
화재 발생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,  
지난해 12월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낙상사고도  
우려되고 있다.

실제로 뽕뽕다리 개설 공사 작업일지를 보면  
지난 주(2022년 12월 21~30일) 21일과 26일에는  
제설 작업을 진행했고 23~25일은 폭설로 인  
한 작업 중단, 나머지 기간은 용접 작업을 진행  
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"뽕뽕다리 공사 기  
간을 1년으로 감안해 준공 시점을 다음해인  
2022년 8월로 잠정 계획한 것 같다"며 "겨울철  
공사로 주민들이 안전상 문제를 우려하고 있지  
만, 안전사고 없이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  
하겠다"고 말했다. /글·사진·최환준 기자



장애인일자리 발대식 2일 오후 광주시 동구청에서 열린 '2023년 장애인일자리 발대식'에서 임택 동구청장과 참석자들이 일자리사업을 통해 장애 인식 개선 확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/김태규 기자

## 택지개발 '벌떼 입찰' 의혹...건설사들 본격 수사

계열사를 무더기로 내세워 공공택지를 입찰  
받는 이른바 '벌떼 입찰' 혐의로 광주 경찰이  
지역 중견건설 업체 J건설 등 2곳에 대해 수사

를 벌이고 있다.  
2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  
르면 경찰은 지난달 22일 해당 건설사 등을대상

으로 업무방해 혐의로 압수수색 했다.  
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발주한 공  
공택지 입찰에서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률을 높  
인 혐의(업무방해)를 받고 있다.  
현재까지 입건자는 회사별 계열사 관계자 각  
1명씩인 것으로 전해진다. /최환준 기자

## 새해부터 화재 등 사건사고 얼룩

### 음주운전 40대 5·18센터 충돌

새해 벽두부터 광주·전남지역에 화재와 음주  
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사건·사고로 얼룩졌다.

2일 낮 12시 29분께 전남 고흥군 두원면 한  
야산에서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 당  
국에 의해 16분 만에 꺼졌다.

이 불로 임야 0.1ha가 탔지만 인명피해는 없  
었다. 이날 진화 작업에는 소방차·산불 진화차  
11대, 공무원과 소방대원 56명이 동원됐다.

산림 당국은 주민이 산 아래에서 농산물 쓰레  
기를 태우다 불길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

화인을 조사하고 있다.

앞서 이날 오전 오전 4시10분쯤 광주 서구 쌍  
촌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  
가 5·18기념문화센터 출입문을 들이받은 40  
대 A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.

이 사고로 A씨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며 기  
념센터 출입문이 부서졌다. 출동한 경찰은 현장  
에서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. 그 결과 A씨의 혈  
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.

경찰 조사에서 A씨는 "주차 중 안전운전 부  
주의로 사고를 냈다"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  
다. /민찬기 기자

### '선거법 위반' 이승욱 전 강진군수 집행유예

선거 전 음담장들을 동원해 명절 선물을 돌리  
고 불법 정치자금 받은 이승욱 전 강진군수가  
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

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  
반,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군수에  
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
고 2일 밝혔다. 추징금 3,000만원도 부과했다.

이 전 군수는 2018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  
지 6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2,145명에게 6,200  
만원 상당의 명절 과일 선물을 보낸 혐의로 기  
소됐다. 법원은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이 전 군수  
의 혐의를 인정했지만,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  
는 직접 지시해 개입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.  
/최환준 기자

중소벤처기업부  
성능인증

품질인증  
Q-Mark

테크의 세대 교체!

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 
논슬립 디자인데크

■ 합천 해매산 전당대

■ 목포 노을공원 공연장

■ 부여사비 창작지구

■ 인천 갯골천 정비사업

기존데크

➔➔➔

고강도 디자인데크

습기에 의한 부식, 번거로운 유지관리  
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 
국산 원재료 사용으로 경제적이며  
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!

프론티어벤처 KIBO ISO9001  
"사람과 자연의 생명가치를 존중하는"  
휴먼이엔티주식회사

문의 전화 1644-6430

천안본사 및 공장 충청남도 서북구 망향로 903-6 (오목리9)